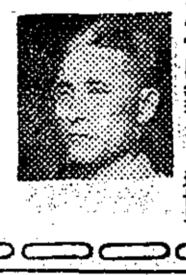
第七千七百六十九號 (1945·12·21 第三種郵便物認可) (1946·8·18 許可證第二五號) (火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二八一年九月七日 (日刊)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東文 編輯局長 洪鍾仁(?)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②三三二五·②三三二四 八五八·四八
月定購讀料 貳百圓

三領袖의合作所望
中國蔣大統領멧세-지
李大統領과兩金氏에金將軍傳達

這般中國으로부터 二十餘年만에 歸國한 抗日戰의 勇士인 金弘一將軍은 三日李承晩大統領을 訪問하고 蔣介石氏로부터 李大統領에게 보내는 다음과같은 內容의 「멧세-지」를 傳達하였다고한다

韓國이 主權을얻어 國際的으로 適田한對象이 된것을 祝賀하는바이다 中國의 內戰을 通하여 共產黨과는 妥協이 不能하다는것을 確認하였음으로 中國과 朝鮮民族이 사러가라면 共產黨勢力을 剿滅치않으면안된다는것을 痛感하는바이다 貴國內에서 反共勢力의 對立은 遺憾으로 生覺하는바이며 金九 金奎植兩氏와의 合作을 所望하는바이다 또 中國은 新生大韓民國政府를 絕對로 援助할것이며 우리의힘이 미치는데까지 韓國問題가 國際的으로 圓滿한 解決을 보도록 努力하겠다

그런데 이 「멧세-지」는 金將軍이 歸國直前에 蔣介石氏가 招請하여 傳達을 要請한것이라하며 兩金氏에도 同一한內容의 「멧세-지」를 傳達하였다고한다 (寫眞上 蔣介石氏 下는 金將軍 中 三領袖)



社說
大統領渡日說에

一

大統領 李博士가 「맥아-더」司令官에對한 答禮를 兼하야 同司令部當局과 朝鮮問題를 協議코저 日本을 訪問하리라고 外電은 報道하고있다 政府의公報가 없는以上 이것이 事實일것이라고 認定할수는없다 그러나 이미 國際的消息으로 提供된以上 이것이 妥當한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常識으로는 不必要하다고 斷定한다 지금 政府가 서다고는하지만 行政引受는 其他國內政治의 自立的軌道를 찾지못하고있는 이때에 行政權의 主班者요 國務會議長으로서 어느하로라도 자리를 비일날이있을수없을것이며 또 答禮라고하지만 一國의 大統領으로서 비록 交分의 私的인點에서 「맥아-더」大將과 무엇이 있다하더래도 이러한 儀禮的일에는 代理로도 될수있을것이다 맥將軍은 占領軍司令官이다 지난八月十五日 政府宣佈式 그날까지에는 하지司令部까지 그 麾下에 두고 指揮하는 地位에 있든만큼 그 多忙한中에 이곳까지 왔었다는것은 고마운일이었고 또 그 政治的意義도 있었을것이지만 그날以後로 美國大統領의 特使로 무치오氏가 來任한以上 무치오特使 問題에 關하야 풀게처노코 다시 協議할 相對를 求한다면 美國務長官이나 美國大統領以外에 있을수없다 그뿐아니라 日本과의 國交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時日을 必要할것이요 더구나 저편에서 어느時期에 大韓民國政府를 承認하겠다고 하더래도 이를 받자하는것이 또 어느時期이며 어떤節次에서 하여야할것이냐 하는것도 이國家와 在日六十萬同胞의 利害關係에 重大한바를 充分히 檢討치않고는 應하기 어려운터이고 또 지금 國民間에는 아직 日本을 半敵國視하는 感情이 풀리지않고있거던 大統領이라는 地位에서 日本의 땅을 來往함은 決코 輕忽히 할수없다。

二

또 大統領李博士의 外國記者會見談이라고 傳하는바를 日本政府首相이 反駁한것이 外電으로 報道되여 우리의 注目을 끌은것이 있었다 卽 李大統領이 對馬島가 朝鮮의 舊領이니 그返還을 日本에 交涉할것이라고했다는것은 歷史上에서도 根據없고 또 포스담宣言의 精神에도 違反된다고 日本首相이 말했다는것이다 大統領의 果然 對馬島返還交涉의 必要를 外人記者에게 어느程度로 말했었는지 우리는 全혀 모른다 적어도 이런重大問題라면 憲法第七十二條의 國務會議議決事項中 第一項目에 屬할것이다 外人記者의 報道가 어떤것이었던 한번 그報道가 相對國責任者의 應需反駁에까지 오르게될때 國家的立場 또는 對外的印象은 意外로 微妙한 作用을 하는것인데 政府當局은 이러한 報道에 對하야 어떤 關心을 가지고있는지 또 한가지, 過渡政府 警務部指揮權移讓에 關하야 大韓民國大統領과 美駐屯軍司令官사이에 移讓、引受의 그 責任者로서 共同聲明書를 發表하고있으나 이것도 「各部行政長官(行政)을 統理監督」하는 國務總理나 또 韓美會談의 代表者들로써 그任을 擔當케함이 當然하고 또 조금도 不足이 없을것이 아닌가, 從來의 占領軍司令官의 任務를 代身하야 美國의 代表機關으로써 政權移讓事務의 責任을 履行하여야할 當者가 무치오特使이고 그러고 무치오特使赴任後로는 占領軍司令官은 存在치 안는다 다만 駐屯軍司令官이 從前軍政長官事務를 擔任했다면 行政移讓의 事務責任 그것뿐일것이니 그러타면 大統領이 그러한 部分的인것에까지 나서서 共同聲明을 發表한다는것은 지나친 親切일것이다。

三

적어도 憲法에 明示된바 「外國에對하야 國家를代表한다」는 大統領의 權威를 尊重하기爲하야는 위에 말한바 있는일에 전없는듯한일에건 國民의 關心이 및지않을수없다. 對等의 國交를 爲하야는 國際慣例一般을 尊重하야 이를 遵守할것이 必要하고 當然하거니와 對外慣例에 있어서 一般國際法과 國際慣例以下의 特例로써 對하는것은 自己를 拘束하는 前例가 될것뿐일것이다。

反民法第二讀會完了
尹·趙氏間反逆者聲明問題化

國會

六日國會五十八次會議에서는 全文三十二條로된 反民族行爲處罰法案審議 即第二讀會를完了하고 第三讀會로 廻付하야 條項編入과 文句修正을하기로하였는데 六日會議에서는 第二十八條 「公訴時는 公布日로부터 一年을 經過하므로써 完成된다」는 時効期間一年을 二年으로 修正하였고 第三十二條를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한者로서 國體를 組織하는者는 一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로 修正한外에 第三十條에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의 本法을 「大韓民國憲法」으로 修正하여 全部原案대로 無修正通過시켰다 法案審議前에 報告로서 金衆會外 三十四議員의 決議로된 米穀收集廢止를 爲한 糧穀管理法制定案이 報告되었음 產業勞農委員會에 廻付하야 適切한 方針을 研究케하기로하였으며 趙憲泳議員으로부터 即日某新聞에 大統領特使로 任命된 趙炳玉氏를 反逆者로 指摘한 尹內務長官의 談話는 重大한問題로서 그眞相을 糾明할必要가있다는 發言이있어 國務總理 內務長官外務長官에게 國會에 出席하야 答辯할것을 要請한바 尹內務長官으로부터 趙炳玉氏를 反逆者라고한것은 報道의 錯誤라는 答辯이있어 이問題는 有耶無耶로 落着되고 말았다

通過된反民法案
△第三章特別裁判部構成及手續▽

第十八條 本法에規定된 犯罪者를 處斷하기爲하여 大法院에 特別裁判部를 附置한다 反民族行爲를 處斷하는 特別裁判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裁判部部長一人 部長裁判官三人 裁判官十二人으로써 構成한다 前項의 裁判官은 國會議員中에서 五人 高等法院以上의 法官 또는 辯護士中에서 六人 一般社會人中에서 五人으로 하여야한다

第十九條 特別裁判部에 特別檢察部를 並置한다 特別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部檢察官長一人 次長一人 檢察官七人으로써 構成한다

第二十條 特別裁判官及特別檢察官은 左의資格을 가진者中에서 選擧하여야한다

一、獨立運動에 經歷이있거나 節介를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있는 法律家

二、愛國의 熱誠이있고 學識德望이 있는者

第二十一條 特別裁判部部長과 特別裁判官은 大法院長及法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고 特別檢察官長과 特別檢察官은 檢察總長及檢察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二十二條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在任中 一般裁判官및 一般檢察官과 同一한 身分의 保障을 받는다

第二十三條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在任中 國會議員以外의 公職을 兼하거나 營利機關에 參與하거나 政黨에 關與하지 못한다

第二十四條 特別裁判部에 三部를 두고 各部는 裁判長一人과 裁判官四人의 合議로써 裁判한다 (續)

趙炳玉特使派遣
中國政府서受諾

【南京六日發中央社朝通】 中國政府는 中國의 新生大韓民國政府承認에 對한 謝意를 表明키爲하야 趙炳玉氏를 特使로 中國에 派遣하겠다는 大韓民國政府의 要求를 正式으로 受諾하였다 大韓民國政府의 申請은 前番 「서울」駐在中國總領事를 通하여 中國外交部에 傳達되었든것이다

韓美會談難關?
…打開에美政府指令必要…
존슨氏急遽華府行

美軍民事處長이며 韓美會談의 美首席代表인 C·G헬믹少將의 政治顧問 「존슨」氏는 韓美會談에 關한 重要書類를 持參하고 國務省에 報告次 二週日豫定으로 五日午後飛行機로 華府에 向하였다한다 그런데 外交消息通에 依하면 韓美會談에서의 某種難關을 打開하기爲하야 華府의 指令을 받고저 急遽出發한것이라고 보고있다

美의經濟援助
李大統領이要請
白聖館發表

【뉴-욕五日發RP共立】 三日白聖館에서 大韓民國李承晩大統領이 「트루만」大統領에 보낸 書翰의 全文이 公表되였다 大統領의 書翰은 朝鮮政府樹立에 對한 「트루만」大統領의 祝電에 應한것이며 그書翰에서 李大統領은 美國의 經濟援助를 要請하고 또 그目的을爲하야 韓美共同委員會를 開催하자고 提議하였다 李承晩大統領은 말하기를 三八線으로 兩斷되여있어 北朝鮮에서 나오는 物資를 使用하지못함으로 美國의 經濟援助가 絕對로 必要하다고 하였다

勞農黨近日誕生

國會內의 無所屬一部議員 李勳求 金永東氏等이 中心이되어 大韓農友黨을 發起하게되였다함은 既報한바 있거니와 同黨發起側에서는 大韓勞總側과 合流하여 大韓勞農黨(假稱)으로 發足하기로 되였다하는데 來十日下午二時市公館에서 發起大會를 開催하고 二十六日頃에는 서울運動場에서 結黨大會를 開催할 豫定이라한다 그리고 發起準備委員은 無所屬國會議員側 李勳求 柳鴻烈 金永東外四十一議員 大韓勞總側 錢鎭漢外二十名 大韓農總及一般側 李奎恒外百十名이라한다

『윌』和蘭女王退位
유리아나王女繼承

【암스테르담五日發UP】 (朝通) 四日和蘭國民의 눈물과 歡呼속에서 「윌헬미나」女王은 退位하고 新女王이 王位에 올랐다 即 「윌헬미나」女王은 今日正午直前에 退位宣言書에 署名하고 過去半世紀間 차지하였든 王位를 물러가고 그의 三十九歲에 達한 女息인 「율리아나」王女가 和蘭의 女王이되고 同時에 和蘭帝國의 統治者가 된다

佛內閣成立
슈망氏外相兼任

【파리六日發UP朝通】 「마리-」內閣下野에 이어 新首相 指名을 받은 後數日來의 組閣工作에 失敗하고 一旦首相職을 辭退하였든 「로베-르·슈-망」氏는 「오리올」大統領으로부터 再次指名을 받고 政界要人들과 會談을 거듭한後 五日아침에 이르러 過去十六個月間 政府를 運用하여온 中間派諸黨으로 構成된 新內閣組織에 成功하였다고 發表하였다 이리하여 六日間 無政府狀態에 있든 佛蘭西는 그政治的危機를 免하게되였다 아직正式으로 發表되지않었으나 거의 確定的인 非公式閣僚名簿는 다음과같다

首相兼外相 「로베-르·슈-망」 (人民共和) 財務經濟相 「크리스탕삐노-」 (社會) 勞動相 「다니엘·메이에」 (社會) 國防相 「루네·메이에」 (急進社會) 內相 「줄르·모슈」 (社會)

北韓代議員所屬
各政黨團體別

平壤放送의 報道에 依하면 北韓選擧에서 選出된 代議員의 政黨團體別所屬은 다음과같다

北勞黨一〇二名 北朝鮮民主黨三五名 靑友黨三五名 南勞黨五五名 人民共和黨二〇名 全評二七名 全農二八名 民愛靑七名 民主女盟九名 文聯六名 全國儒聯六名 基民同盟七名 勤民黨二〇名 社民黨一一名 新進黨一一名 民主韓獨黨一〇名 民衆同盟八名 民主獨立黨一〇名 勤勞人民黨二〇名 民族自聯六名 靑友黨三名 民族大同會二名 健民會一名 救國靑年會一名 韓獨黨三名 建靑一名 學兵同盟一名 佛敎靑年黨二名 拒否者同盟二名 佛敎靑年同盟一名 愛國婦女同盟一名 農民黨一名 無所屬一一三名 合計五七二名 男子五〇三名 女子六九名 出席率九一%

馮玉祥將軍變死
蘇船上의火災로

【모스크바六日發UP朝通】 中國의 有名한 「크리스찬」將軍 馮玉祥氏는 今般쏘聯船 「포베다」號로 「오뎃사」로 向하는途中 船上에서 火災를 맛나 그의 令孃及 다른 船員들과 함께 不慮의 죽엄을 마지하였는데 享年六十八歲이다 (寫眞은 馮將軍)

八面鋒

美國이 새로언은 수양아들 日本을 너무지나치게 귀여워하는통에 庶子比律賓의 不平이 터젓다 ▲日… 우리比律賓이 一弗을 얻을때 그들은 六弗을 얻으니 우리比律賓은 오히려 飽食한 日本을 부러워한다고 ▲다시 比律賓은 말하기를 三年前 미조리艦上의 調印은 이제보니 無條件降伏은 커녕 아무런 降伏도 아니드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날을 慶賀할 理由는 勝利者에게 있다는것이다 ▲아흔아홉마리羊보다 잃었던 한마리가 귀여운법이요 勤實한 맏아들보다 苦生하고 도라온 蕩子를 側隱히 여김은 當然한노릇 ▲버릇없는 日本、한때 美國에 不遜하였으나 이제부터 美軍服을 입혀놓면 比律賓보다도 쓸모있는데야 어쩌나 ▲日本의 降伏이 有名無實이라고 不平하기前에 못노라 比律賓아 그대가 얻은 獨立은 果然 有名有實한건가?

高級中學·專門·大學·敎材
崔虎鎭著
經濟學大要
46版 283頁 上質紙美裝本價450圓

니아시아나요●포르자보 共
世界史敎程
第一分冊 三版420圓 第二分冊 再版380圓 第三分冊 初版450圓
良書出版 白楊堂刊

和同
救急胃腸藥
活命水
서울市西大門區巡和洞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電光(3)二七一九·四八一

初秋臨時號
映畫時代
값 二〇〇원
서울市中區乙支路三街三四一의一 映畫時代社發行 電話 서울一九五七八番
映畫小說 靑春山脈 ∥金聖珉
映畫俳優의 魅力……吳佛蘭
내 번재 매카폰을 들면서……李圭煥
建의 『愁雨』를 보고……李台雨
映畫監督 崔寅奎論……金正革
씨나리오 愁雨 ∥安鍾和
詩의小說
거북船은 다……方洙
그사나희 日記……金海
美羅에게……李一
李民子씨에게……朴民
朴一禎씨에게……李
(이하 소설 목록)
明貞……東華
放送劇 아버님무덤에 ∥李春風
小說의 映畫演劇化問題……洪曉民
우리映畫界의 展望……安碩柱
劇場에 對한 私見……柳致眞
人情의 開花……崔永秀
映畫小說 海燕 ∥故朴鄕民
映畫·演劇 月刊雜誌

◇文敎社出版案內◇
초등습자 初版賣盡 再版發賣
文敎部認定
4年用……40圓
5年用……40圓
6年用……40圓
九月一日부터全國有名書店에서發賣
초등그림책 『初等圖畫冊』
1年用…150圓 2年用…150圓
3年用…150圓 4年用…150圓
5年用…150圓 6年用……未定
○高級模造紙八色圖印刷
○一年用은九月十日부터配本
○2345年用은順次로配本豫定
서울市乙支路2街168 總販賣處 文敎社 電話本局②8615 振替京城26559·992

東西洋裁專門學生募集
本科 夏秋冬八〇名 研究科 各六〇名
詳細는本人來談·出願期日九月十日까지
서울市中區山林洞一八八(南部場越便꿀목) 電本(2)六八二八番

食糧政策의歸決點은?

生產側供出反對

糧穀生產消費者懇談會開幕

신정부가선포된지 임이一삭을지낸오늘날 정권이양사무는 뜻밖에지연되여 정부각장관으로부터도 아무런시정연설도없고 행정의진공상태에서 일반인민은의지할바를몰라 오직생활만을좇아서 갈팡질팡하는이때 참다운민의를 듣고확고한식량대책을 수립하고저 작六일오전十시부터 저축은행회의실에서 남조선의양곡생산소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회의에는 남조선각지에서 국회의원의 추천을받고 모혀든 농민출신의 생산자六십명을 위시하야 소비기관관계자二십명 기타농업권위자 국회의원등 약二백여명이참집하였는데 농민중에는갓을쓴영감님도보이며 보리차가든 「컵」을 하나식앞에두고 의자책상할것없이느러앉은채난잡한가운데드질서정연하게 진행되였다

먼저 농림부장관 조봉암(曺奉岩)씨의 본회의의장격으로서의 「지난날은 우리가외부적제약밑에서 의사발표의위협을받았으나 오날 이자리에서한발언은 절대로보장한다 우리배후에는아무런압력이없다」라는인사의말이끝나자 각생산자로부터 구체적고충을반영하는 보고를접수키로하고 七일에는 소비자의보고를듣기로하였다 이제각농민으로부터의 의견을종합하면 다음과같은데 특히주목할현상은 한사람의예외도없이 모다 공출에 절대반대한다는것이다 현재공출은 일제시보다 더욱가혹한수단으로서강요되어있으며 우리는총검이두려워서할수없이 공출했다기보다도 강탈당하였다 일제시보다 못하지않게 공출량을 바쳤는데 외곡을다량수입하는원인이 어데있는가 일제시는 일본놈과 토착배지주대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였으나 군정三년간은 관공리에게 착취를 당하였으며 적어도 이들은착취와 중매자가되었다 공출을해제하면 충분히 쌀값이 떠러질것이며 마만시기에따라쌀을국가에서 매수하야 적당히 값을조절하는 기관만을두면좋을것이다

현재 공출한대가로서는 의복조차 자입을수없다 한번병이걸리면 의자에게도 못뵈우게되며 더욱여자녀의 교육은절망적이어서 우리들은 새로운착취의그물과 노예화의과정에서자멸의구렁에 빠저갈뿐이다 이현상은 농업국조선의멸망을의미한다 두려시동포의 한사람이아닐수없는 농민들은 이러한사정으로서반골사상을품지않을수없게되며 지금분노의폭발의 전야에있다 그렇게도반쪽정부에반대했음에도불구하고 남조선선거에부표한것은 신정부에공출폐지와토지개혁이란일루의희망을갖었든때문이다 아직것 해방의덕택은 우리에게분배되지않었다

六일회의는 이와같이 농민의공출폐지의여론이전체를 찾이하였으며 七일회의에서는 소비자의 보고가있을것이며 수일후에는 각계권위자들을 망라한공출여부문제의 론의가버러질것으로 신정부벽두최초의중대문제가될것이다

(사진은간담회광경)

村民射殺이發端 山外支署長被殺

지난二일 오전十一시경 밀양경찰서 산외(山外)지서장 최(崔)경사는 희곡리(希谷里)에서 부락민수十명이 그여때 망산포와시위행진등을 계획하고 있다는정보에접하여 순경一명을대동하고 현장에출동하였는데 부락민측주모자一명이 도주하는것을경찰측에서 발포하여 즉사시키자 이에분격한부락민들은 전기최경사와 순경一명을포위하고 총검을탈취한다음 괭이와삽등으로 무수히구타하여 전기최경사는 현장에서즉사 순경一명은 간신히피나하였다한다 이급보에접한 밀양서에서는 즉시무장경관대를동원하여 범인五명을검거하였다한다(釜山朝通)

背後가極注目

國會삐라撒布犯拘束送廳

반민족행위자 처단법안에대한 진지한토의가 계속중인 국회내에서 지난八월二十七일 오전十시二十분경 二층방청객중「집어치워라」는 반대하는내용의삐라를뿌린 피한三명중 서울시영등포구 상도동(上道洞)一七一번지 이신태(李信泰)(二八)와 원효로(元曉路)一가二一번지 차상보(車良輔)(二八) 두명은 즉석에서경비원에게체포되여 그동안 수도청에서 취조중이던바 작六일 구속으로 송청되여 방금 김병화(金炳華)검사가담당 계속문초중이다 이들은 八월十二일밤 명동모식당에서 법제조사국직원박성술(朴成述)(二九)과함께 이계획에대하야 합의를본후 二十六일 오후六시반경「운현궁」군정청에서 인사행정처원 사감(舍監) 명동운(明東運)으로부터 방청권을 인수하고 二十七일 국회의 방청도중 계획적으로 삐라를 살포한것이라고한다 그런데 취조에따라서는 이들의배후관계자도등장되여 복면을벗을것으로 선관민족반역자에대한 일반의 여론이물것으로보인다 그런데담문한바에의하면 송청서류내용에는 배후관계자에대하야일체언급되지 않고있으며 전기박 명양인에대해서도 아무런관련이없었다고한다

日氣豫報 南東風乃至南西風이불고때로흐리겠으나 上中에는호졌다

國語淨化

말은時代를따르는것

지나친語彙制定은混亂을惹起

앞서 과도정부 문교부와 조선어학회를중심으로조직된「국어정화(淨化)위원회」에서는「말이없는곳에정치가어디있으며 말이없는고에교육이어디있으랴」라는이념하에 일찍이우리말가운데서없어진말(陰語)을 도로차저쓰는동시에일제(日帝)의식민지적여정책에물밀듯이쓰다전들어온 불순한일본말을일소하고 국어정화를 피하고저 八백六十二의 어휘(語彙)를 완성한바있었는데 그내용에있어 너무급진적이며지나친느낌이없지않으며 말이란 시대를따라우리의 생활양식이변하고 생활양식이변함에따라 말의내용도변하는 것인데이미없어진 말을게다가그중에서도 오늘의우리생활양식에 전혀맞지안는 말을 그공통된점이있다하여도로차저쓴다는것은 시대적변천을무시한것인바 예를들면 동물학(動物學)을「엄서리갈」향토생활(鄕土生活)을「고장생활」이라고하는따위며 또외국말로서완전히 우리말화한것까지구태여 고친다는것은 도리혀 우리말의 혼란을 이르킬염려가 적지않어 이에대한 일반의비난은 자못 적지않은바가있어 이에 각계인사의 담화를들어보면 다음과같다

말도한生命體 죽은말「도로찾기」는不必要

서울大副院長 趙潤濟氏談

말이란한생명체이다 설혹외어(外語)가우리말가운데침투되고있다할지라도 이는우리말이란나무의 본간(本幹)에 접을부친것과같은것으로 그나무전체가생명을 갖는것이며 이미우리말화하였다고 볼수있으니 이를억지로곤친다면은 말의혼란을조장함은 물론 말의발전은있을수없을뿐더러 나아가서는퇴보를가저오게할 우려가있는것이다 또다음에우리말도로찾기라하여 이미없어진 옛말을 변천된오날의생활에 그대로 사용함은 지극히부당한일이다 바라건대 꼭필요한것만 고치고 그렇지않은것은 그냥둠이좋을것이며 귀둘잡으려다혹은께트리는따위 어리석은짓수고는차라리 하지안함만못한것이다

文理大豫科部長 李崇寧氏談

과거군정하의 문교정책에대해서는 호감을가지지않는바이며 반성할여지가다분이있다고본다 국어정화운동에있어서도 그근본문제가 언어(言語)자체를여하이 해석하느냐가본질문제인고로 먼저이를정확이 귀정하여야할것이다 이번국어정화에 있어서의 원제씨의 노력은 인정하는바이나 언어의 형태가의고(擬古)적인것과 음율(音律)이 조치못한데 불만을느낀다 게다가 일본술어에 형태를해석한데불과한것도 적지않다 말이란항상산말이어야 할터인데 이미죽은말 즉고어(古語)도 끌고가려는「우리말도로찾긴」그자체가벌써 조흔말은아니다 이러한문제는 요컨대언어사회에서 유리(游離)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며 일본말중에서도 그대로남겨둘것도 있다 그것은 영어(英語)속에서도 미개인의 토어(土語)를얼마든지 사용하고있지안은가? 너머편벽된생각을버리고 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며 우에서말한바와같이 언어는생명이 있는것임으로 언중(言衆)과유리된것은 생명이 길지못하다

文理大學長 李泰圭氏談

너무지나친 노력이있다 우리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본다면 학술어에대하여서는 과거에쓰든 학술영어(英語) 그대로두고 일본말가운데에서「우나리」「시고도」기타 순수한일본말만을 우리말로 번역함이 좋을것이며 적어도 자연과학에대한 술어는막연하게 국어정화위원회에서 제정하는것보다학요에응하여 우리자연과학

中東中學校長 崔奎東氏談

국어정화위원회에서 발포하였다는 八백여어휘를 아직보지못하야자세히말할수는없으나 머리를놓고우리말을도로찾는다고 급진적으로서둘지면 도리혀말의혼란을 이르키게될것이며 신문한장 볼생각이안날것이다 지금 시급한문제는 문맹(文盲)을일소하는데있으며 예를들면「비행기」라면 모다알수도있고따라서실물체(實物體)도상상할수있는데「날틀」이라 한다니 이는오히려 무슨말인지알수없을것이다 극단이아닌대중적으로쓰이는말은 그대로쓰는것이좋을알며 고칠것은 점진적으로고치라고나말할가요

朝鮮化學會談

원측적으로는 찬성하는바이나 이번제정된바에의하면 너무지나친감이불소하다 좀더신중을기하여주기바라며 위원회조직에있어서도 어학회나문교부만을중심으로조직하지말고범위를널피여 각전문위원회를조직하여 필요한말을먼저이곳에서 만들고그후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외국어라할지라도 완전히우리말화한학술어는 그냥둠이좋을것이다

體育

第四回朝鮮올림픽水泳大會戰績

朝鮮體育會主催 第四回朝鮮올림픽水泳大會는 지난四、五兩日間 서울運動場水泳場에서 盛大히擧行되었었는데 그戰績은다음과같다

△一般四百米自由型 Ⅰ、朴成七(海大)六分一秒F△一般二百米平泳Ⅰ、朱他官(慶南)三分二〇秒四△男子中學四百米自由型Ⅰ、金光秀(養正)五分四八秒

△男子中百米自由型Ⅰ、張裕琛(京畿)一分九秒七△男子中四百米平泳 Ⅰ、鄭奎一(京畿)六分五二秒三△一般背泳百米 Ⅰ、李延斧(高大)二分F△男子中混泳三百米Ⅰ、培材五分〇五秒F△男中一五〇〇米自由泳 Ⅰ、東一(培材)二九分一五秒七△男中背泳二百米Ⅰ、趙鏞章(京畿)三分廿四秒四 △男中平泳二〇〇米 Ⅰ、鄭奎一(京畿)三分二〇秒四 △男中自由泳二百米 Ⅰ、金光秀(養正)二分四〇秒一

△一般繼泳二百米Ⅰ、海洋大學△따이빙(跳板)Ⅰ、李昌培二四 △따이빙(高跳)Ⅰ、李昌培二四 △男中繼泳 Ⅰ、養正二、〇五F 2、京畿 △一般混泳三〇〇米 Ⅰ、高大四分廿一秒F △男中背泳百米Ⅰ 安秀男(培材)一分卅六秒一 △男中四百米繼泳Ⅰ、養正十一分三分秒四 2、培材 △一般平泳百米Ⅰ、朱他官(慶南)一分廿七秒四 △一般自由泳百米Ⅰ、朴成七一分〇六秒九 △男中水球聯盟戰 Ⅰ、徽文二戰二勝 2、京畿二戰一勝 3、培材二戰二敗

實業野球戰績

漢城野球聯盟主催、秋季實業野球聯盟戰은 지난二日부터 서울運動場에서盛大히開幕되였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 第四日까지의 戰績은다음과같다

第一日 朝興8A—1遞信
第二日 京電2—1殖銀 專賣5A—4交通
第三日 朝興7—0交通 朝運5—0京電
第四日 朝運9—1殖銀 專賣9A—2朝興

織造附屬 高價買入
朝鮮工業社 서울中區忠武路四街四八 電本(2)三五八九

求電話
本局、龍山、光化門、東局中어느것이나買入함
서울鍾路區桃洞一街一三〇 朝鮮旅館

賣家
所在花園市場前四巨里모퉁이집 繁榮地
建坪 下層十二坪・上層三坪・垈地만은敵產・價格八萬五千圓也
問議處 서울市中區藝舘洞五六 漢城中央古物商會

夜間營業
○自用車部分品在庫豊富
○特히택시ー를爲하야夜間營業도함
○稀貴部分品責任付託斡旋
自動車一般手續(無料代書)、自動車賣買及交換相談에應함
서울市乙支路四街一六二 朝鮮自動車興業社 電本(2)七四四六

求10馬力重油發動機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六一 三興實業株式會社 電(2)二九二六番

本社廣告部直通電話 本(2)四六九三・三三八四

事務所移轉
謹啓時下各位의 請安을 仰祝하나이다 今般本社는 左記와 如히 事務所를 移轉하였아오니 各位의 倍前愛護를 伏望하나이다
記
舊 서울市西大門區橋北洞四의二
新 서울市中區南大門路三街八五
天家紙函工業社 電話本局(2)一五五七・三六三五番

家政科保育科 師範學生募集
科別 1、家政科(家事科) 2保育科
修業年限 本科二個年 專修科一個年
募集人員 本科六〇名 專修科晝夜各六〇名
編制及入學資格 1、專修科(晝夜二部制)各女子中學三年修了以上 2、本科 各女子中學校卒業程度
志願期日 自八月二十三日 至九月十四日
試驗日字 九月十六日
◇本校는大學令에依한高等師範學校로서 卒業後에는 文敎部로부터 無試驗資格의女子中等學校敎師資格이授與됨
其他詳細한것은本校事務處에問議할事
서울家政保育師範學校 서울市鍾路區仁寺洞一三七 電光(3)二八九二

補缺生募集
崇文中學校
一、募集人員 晝間部(第一部) 夜間部(第二部) 二年以上各 若干名
一、出願期日 九月十一日까지
一、試驗期日 九月十三日부터
서울市麻浦區大興洞二八 電話龍山(4)三七八番

工科學生募集 (夜間授業)
特典・1)實力本位 2)講師優秀 3)學費低廉
一、募集人員
가、土木學科、建築學科、機械學科、電氣學科 第一學年各六〇名式
나、土木學科、建築學科、機械學科 第二學年各若干名式
一、應募資格
第一學年 1)舊制中學校及各種實業學校卒業者 2)同等學力有한者 3)舊制各種工業學校卒業者로써資格試驗合格者
第二學年 1)新制中學校卒業者(學課試驗免除) 2)現工業專門學校第一年修了者 3)舊五年制工業學校卒業者
一、出願期日 自八月二十六日至九月十日
一、試驗期日 自九月十一日至九月十二日
一、願書接受處(案內書交付處) 本學館致務處 西隣 和一土建社內臨時事務所 서울市乙支路一街舊半島호텔 本學館 서울市鷺梁津電車終點
註…詳細案內書參照要用紙代五十圓 …本學館現臨時校舍는 開學卽後市內中央地帶로 移轉準備中
臨時校舍서울鷺梁津電車終點
東洋工科專門學館 電話龍山(4)二八八九番

補缺生募集
財團法人東洋工業中學校
一、土木科、機械科第一、二、三學年 若干名
一、出願期日 九月十日(鷺梁津終點에서三分)
一、試驗期日 九月十一日(鷺梁津驛에서一〇分)
一、事務簡素化를爲하야 入學願書만提出하고成績一覽表調書는 試驗合格者만提出하기로함
一、連絡事務所 鍾路二街 永保빌딩二層高麗產業會社內에서 一般事務를取扱함
서울市永登浦區本洞 電(4)二八八九

全體育英을目標로!
校舍增築工事着手
現實과時代를 超越한民族敎育制度를 一大刷新코저右校는 財團法人을 設置한能力을 國家敎育理念인人間中心敎育과 全民族育英標準에一路邁進코저 六百萬圓豫算으로서 施設整備校舍增築工事에 着手하여不遠落成을볼것이다 玆에國家將來를左右할 靑少年의哀願에 應하여增募함

朝鮮中學補缺生募集
募集人員
第一部(晝間) 第一學年 六〇名(學級增設) 第二、三學年 四、五學年 若干名
第二部(夜間) 第一、二學年 六〇名(學級增設) 第三、四學年 若干名夜間
特別設置 速成敎授部(修了年限各班六個月) 初級中學班 六〇名 高級班中學班 六〇名
願書提出期日 九月二十日限
詳細來問
連絡處 鍾路和信앞東一百貨店三層內
서울市東大門區安岩洞(敦岩洞終點下車)